

번호: PO-EP-001					
제 목	사회경제적 사망률 불평등의 기전: 총사망, 심혈관계질환과 관상동맥질환 사망에서의 연령에 따른 변화 양상 Explaining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Mortality from All-causes, Cardiovascular Diseases, and Coronary Heart Diseases: Age-specific Trends in South Korea				
저 자 및 소 속	강영호1), 조홍준2) 1)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2)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Young-Ho Khang1), Hong-Jun Cho2)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분 야	역 학 [만성질환 역학 및 건강 위험요인]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목적: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총사망, 심혈관계질환 및 관상동맥질환 사망률의 차이를 연령별로 기술하고, 주요 위험요인(흡연, 음주, 혈중 총 콜레스테롤, 혈당, 체질량지수, 신장)이 이러한 사망률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연령별로 평가한다.</p> <p>자료: 1994년도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 건강검진에 참여한 대상자를 9년 동안 사망여부를 추적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민번호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30-64세 남자 557,694명 중에서 9년 동안 16,089명(심혈관계사망은 2,894명, 관상동맥질환사망은 912명)이 사망하였다. 콕스회귀 분석을 통하여 사망률 불평등의 크기와 개별 위험요인의 사망률 불평등 크기에 대한 설명력을 평가하였다.</p> <p>결과: 총사망과 순환기계사망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률 차이가 뚜렷하였지만, 관상동맥질환 사망의 경우, 고령층에서 그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위험요인들 중 흡연의 설명력이 가장 컸다. 이는 총 사망, 순환기계사망,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에서 비슷한 양상이었다. 순환기계질환 사망과 관상동맥질환 사망의 경우, 30-54세 연령군에서 수축기 혈압의 설명력도 높은 양상이었다. 흡연과 수축기 혈압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의 설명력은 미미하였다. 위험요인의 설명력은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총 사망의 경우, 위험요인의 설명력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높아지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순환기계질환 사망과 관상동맥질환 사망의 경우, 위험요인의 설명력은 연령에 따른 뚜렷한 증가 또는 감소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위험요인을 보정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사망률 불평등의 크기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양상이었다.</p> <p>* 이 연구는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1-E00103).</p>					